

이란 핵 문제와 성경 예언에 따른 이란의 최종 운명

이란 핵 문제

요즘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와중에 이란 핵 문제가 터졌다.

4월 29일 뉴욕 타임즈 보도,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 주둔 기지 공습. 시리아 북부 알레포와 하마에 위치한 정부군과 이란 기지 여러 곳에 미사일 공격, 이 과정에서 이란군 18명을 포함해 26명 사망. 규모 2.6의 지진이 관측될 정도로 큰 폭발이 있었고 이번 폭격으로 이란이 시리아에 배치한 미사일 200여 기가 파괴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월 30일(현지시간)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서명한 이란 핵 협상은 '사기'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수집한 방대한 이란 핵 개발 관련 증거를 영어로 직접 전 세계인들에게 발표했다. 영어 쓰는 수상,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네타냐후는 MIT에서 건축학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부를 마쳤고 MIT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MIT 경영대학원 재학 중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도 수학함.

네타냐후 총리는 황금시간대에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이란이 아주 큰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에 서명하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감췄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수 주 전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공개하지 않은 핵 개발 계획을 찾아냈다"며 "이를 증명하는 10만개의 비밀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만 5만 5,000페이지에 달하며, 추가로 5만 5,000건의 문서가 담긴 CD 183장도 이란 테헤란의 비밀 저장소에서 찾았다. 그는 이어 "핵 협상 뒤에도 이란은 이 계획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발전시켰다"며 "정보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고 독일, 프랑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제시한 자료를 고려할 때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나이지리아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내 말이 100% 옳았다는 점이 진실로 입증됐다"며 "이건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미국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한다"며 "이란은 강력하고 은밀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도 이란은 핵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15년 조사결과 이란이 2009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성명,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짜로 보인다"고 동의함.

2013년 10월 1일, 68차 유엔총회의 마지막 국별 연설자로 네타냐후 등장

북한 핵 무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

"믿지 말고, 우선 해체하라. 그리고 나서 검증하라.(Distrust, dismantle and verify)"

"아마디네자드(전 이란 대통령, 2005-2013년가 늑대의 탈을 쓴 늑대(늑대 그 자체)였다면, 하산 로하니(현 이란 대통령, 2013년부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이란의 핵 계획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검증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북한은 이란처럼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도 이란처럼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허한 약속만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제2의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50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만약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혼자 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홀로 서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단독 군사행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란의 대화 제스처에 즉각 호응한 벼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으라는 얘기였다.

네타냐후 연설 직후 북한 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는 반론권을 신청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선제공격 위협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으로서 남의 얘기를 할 자격이 없고, 중동의 안정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폐기하기로 선언, 이와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유예해 왔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활한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문제는 이란의 한 반정부단체가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오랜 외교적 협상 노력을 거쳐 13년 만인 2015년 외교적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란 핵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의 내용은 1. 핵무기의 핵심재료인 농축 우라늄의 제조장소인 포르도를 이란과 서방의 핵과학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연구시설로 바꾸며, 2. 이란의 원심 분리기 2만개를 10년에 걸쳐 6104개로 줄이는 것이다.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 235와 238이 뒤섞인 천연 우라늄에서 235만 골라서 분리해 주는 장치, 3. 또 원자력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도 저농축으로 바꾸고 추출 규모도 300kg 이하로 규정했다. 4. 이란은 석유 금수 및 금융제재를 포함한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고 100억 달러의 동결재산도 돌려받게 된다.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 파기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을 이행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북한에게 주는 경고, 속이면 언제라도 협정 파기하고 제재하겠다.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 즉시 재개와 같은 강경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위반에 맞대응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상전도 우려된다.

이란의 경쟁국인 사우디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면 자신들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해왔다.

이란의 이런 강경 카드는 중동을 전쟁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 이스라엘과 이란 군 무력 충돌,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무력 충돌 10일 새벽 시리아 주둔 이란군이 이스라엘 영토 골란 고원의 군기지로 미사일 20여 기 공격,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쏜 미사일 일부를 아이언돔으로 요격했으며 군기지가 타격받기는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시리아·이스라엘 접경지인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전쟁 과정에서 점령한 뒤 1981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이다.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이란을 추종하는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졌었다.

10일 새벽 F-15와 F-16 등 이스라엘 전투기 28대가 골란 시리아 접경의 이란 측 군사시설 수십 곳을 공격, 공대지, 지대지 전술미사일 70여발을 발사해서 지대공 미사일 기지 초도화 이스라엘군은 이란군이 시리아에서 운영 중인 무기고와 물류 거점, 정보기관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시리아 방공체계도 일부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는 러시아 방문: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7배로 보복을 할 것이며, 누구든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한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란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간다.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이란이 등장하게 되어 있다.

오늘은 왜 이란이 이런 일을 하는지, 이란의 최종 운명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 혹은 페르시아(기존 성경의 바사)로 나온다.

엘람은 셈의 아들(창10:22), 노아의 손자, 맏아들인 것 같다. 민족들 지도(4쪽), 유대인 아르박사

창세기에는 엘람 사람들의 왕 그돌라오멜이 팔레스타인 침공(BC 2000, 창14:1),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을 그를 구함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사22:6)

엘람 사람들의 수도: 수산, 혹은 수사, 고레스의 도시, 울래 강변에 있던 페르시아의 수도(창14:1; 단8:2). 이곳은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 되었다(에1:5). 에스더기는 바로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제3년에 여기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다(단8:1-27). 느헤미야 또한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 할 때에 이곳에 거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았다(느1:1).

고대 왕국의 변천: 느부갓네살의 꿈, 금, 은, 놋, 쇠

바빌론의 엘람 통치(BC 596), 그 이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등장, 바빌론 정복 BC 539년(사21:2), 고레스는 엘람 메대 등 통합, 메대 페르시아 왕국,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짐(단5).

다니엘은 후에 페르시아의 엘람 지방에 거함(단8:2).

에스더기와 느헤미야기 전반부는 페르시아시대의 일이다. 아하수에로(에), 아닥사스다(느), 다리오(학개 스가라 당시) 등

유대인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막음, 페르시아 시대, 그 뒤 부림절

그 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페르시아 정복(단8, BC 331)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조, 사산 왕조, 바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 비잔틴 사람들 지배를 받음

로마 시대, 신약성경(행2:9): 우리는 바대(파르티아)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동방 박사들이 온 것으로 전해지는 나라

AD 636년 무슬림들의 지배, (조로아스터교에서 이슬람교), 그리고 몽골 칭기즈 칸 침략 및 지배

1501년에 이란 국가 형성(사파비드 왕조, 이슬람 시아파 국가), 국왕을 샤로 부름

그러다가 1700년대에 들어서서 서쪽에서는 오토만 제국 북쪽에서는 러시아 사람들 침략

1921년에 레자 샤가 군사 쿠데타, 1925년 팔레비 왕조 형성, 1935년부터 페르시아 대신 이란으로 불림, 그 뒤 그와 그의 아들인 팔레비가 50년 통치

현 시대 이란: 페르시아어(아랍어가 아니다). 수도 테헤란, 면적 1,648,000제곱킬로미터(세계 18위,

남한 면적: 100,000 제곱킬로미터, 16배), 인구 8200만 명, 시아파, 현재 하산 로하니 대통령

동쪽: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북쪽: 우스베키스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서쪽: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아랍에미레이트 등

19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은 국제무대에서 무명 국가

그러다가 이란에서 석유 발견,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고원 지대 쟁탈전, 이란 국제무대 등장

1971년 이란은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 왕국 2500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마치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비슷하다.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그 뒤 급진 이슬람 정권, 그전과는 달리 극심한 반 유대인,

반미 정책, 친 러시아 정책, 아무도 이란이 친 러시아로 설지 몰랐다. 팔레비는 도망감

호메이니는 신정 정치 구현. 서방 문물 배격, 1979년 11월 4일, 미국 대사관 점령, 52명 인질

미국을 '엄청난 사탄'이라 부름, 어리석기로 유명한 카터 때 일어난

그 뒤 444일 뒤 레이건 행정부 때 문제 해결, 수많은 조건 수용, 1989년 호메이니 사망

그러나 이란은 국제 테러, 유대인 박해, 7세기경의 이슬람 국가로 돌아감,

이때부터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 확산, 지하드(성전),

현시대 모든 테러는 호메이니에게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이들은 현재 탄도 미사일을 소유하고 핵을 탑재하려 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소유

러시아가 이를 지지함, 또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제공, 이란과 미사일, 핵 프로그램 공유 이란의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짓밟겠다.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멸절시키겠다.

이란에는 과학자가 많다. 머리가 좋다. 가장 강하다.

이란은 오래 전부터 핵무기를 제조하려 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이미 핵폭탄 3기를 수입했다는 보고 항상 거짓말, 협약 무시,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주권

고레스 시절, 에스더의 아하수어로 시절(에1:1), 유대인들에게 친절과 관용, 지금은 가장 큰 원수 호메이니 등장 전까지는 미국과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

인류 역사의 끝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동시에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겔37-39).

곡과 마곡의 전쟁,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함, 여기에 핵심적인 국가들이 바로 이란과 터키이다. 에스겔서 38-39장의 예언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가담할 것이고 러시아와 함께 파괴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8장: 2절, 곡과 마곡, 메섹 두발(러시아, 터키), 페르시아와 리비아(5) 등

하나님의 7중 재앙으로 물리친다: 지진, 역병, 피 흘림, 홍수, 우박, 불, 유황(겔38:18, 19-22).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엄청난 재난(39:11-12, 17-18)

그 결과 주님의 영광(겔38:23; 39:7), 아마도 핵전쟁 비슷한 것 혹은 주님의 영광의 빛(슌14:12)

이스라엘 회복(39:28-29),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 요엘서와 사도행전(욘2:28; 슌12:10; 행2:33)

이란 관련 예레미야의 대언(렘49:34-39)

하나님께서 이란의 활을 꺾으신다(35).

그들의 힘의 으뜸 되는 것, 아마도 핵전쟁(36)

완전히 멸절되어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이 모든 국가로 엘람이 피난감(36).

엘람의 수치(37)

하나님께서 직접 왕좌를 엘람에 세우신다(38).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옴(39).

왜 이란인가?

지금 이란은 페르시아에 존재하던 하만의 영이 다스린다. 하만 유대인 멸절(에스더기)

호메이니 이후부터, 2005년부터 8년 대통령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이스라엘 멸절이 목표

2012년 8월,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세계 군대의 궁극적 목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Jerusalem Post, 2012년 8월 2일). 같은 달, 아흐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거되어야 할 ‘암적 종양’이라고 칭했고, 이란의 군 최고사령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환영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이란에게 보복할 이유와 ‘유대인 국가를 영원히 없애 버릴’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83:2, 4, 2-8)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도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을 촉구했다.

2014년 11월 8일, 그는 트위터에,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 야만적이고 늑대 같고 영아를 살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체제는 진멸해 버리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고 올렸다. 1년 전,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 지역의 사악하고 더러운 미친개’라고 불렀다.

이들의 주장: 이스라엘 멸절은 이슬람 이맘의 가르침(시83:2, 4, 2-8) 이슬람의 지도자는 이맘.

수니파와 시아파 분쟁: 혈통 분쟁

시아파: 무함마드 사후 그의 아내 카디자가 낳은 딸의 이름 파티마, 그와 결혼한 사람, 알리 계통 수니파, 무함마드의 세 번째 아내인 아이샤 계통, 무함마드 50세 넘은 상태로 9살 아이샤와 결혼 시아파 사람들은 무함마드 사후 알리 계통의 시아파 지도자들 즉 12명의 이맘들만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들의 판단만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수니파는 이맘을 성인 취급하는 데 반대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연방(UAE),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레바논 등의 국가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오늘날 무슬림 인구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바레인, 아제르바이잔과 예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슬람의 메시아 믿음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들은 다 이슬람교의 메시아인 마흐디(Mahdi)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땅 위에 알라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열두 명의 이맘 중 열두 번째 이맘은 죽지 않았고 단지 ‘은둔’ 속에 지내 왔으며, ‘마흐디’ 즉 신의 인도를 받은 자 - 이슬람의 메시아 - 가 완전한 이슬람 사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열두 번째 이맘의 귀환을 믿는 메시아 신앙으로 인해 이슬람교 성직자들의 계층적 조직이 ... 발전하여 그의 귀환 때까지 이슬람교를 다스리게 되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사람들 모두 무함마드의 죽음 이후에 수집된 그의 저작물인 하디스(Hadith)를 수용하고 있는데, 하디스에 의하면 심판의 날이 오기에 앞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범세계적인 칼리프 제국을 수립하고 어떤 기간 (해석하기에 따라서 7년, 9년 또는 19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마흐디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마흐디의 도래는 그들이 이사(Isa)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할 것이며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 또는 적그리스도에 맞서서 마흐디와 연합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시아파는 이 신학을 더 광범위하게 발전시켰고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열두 번째 이맘인 무함마드 이븐 하산 알 마흐디(Muhammad ibn Hasan al-Mahdi)가 바로 그 예언된 마흐디라고 믿는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신이 그를 다시 나타낼 때까지 숨겨 놓았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태를 그들은 ‘은신’(Occult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심하게 대적함

어쩌면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가 성경의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이란의 기독교

98% 이슬람, 기독교인은 이등 시민, 현재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한다. 가정 교회, 매해 20% 성장,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특히 청년 층

1. 기독교의 자유, 2. 위성 방송, SNS, 많은 박해, 아마도 4-50만 명

에스터를 통해 황제의 눈이 열린 것처럼 현 시대 이란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의 기도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둘 다 악의 축이다.

거짓을 믿으면 안 된다. 이란은 성경에 예언된 악의 축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아마도 핵무기에 의해 멸망당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님

성경은 예언을 담은 책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예언처럼.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회복, 이란의 등장, 곡과 마곡의 전쟁 등이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들의 전성기,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미국과 트럼프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한과 북한의 중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멸망을 위해

예루살렘을 화평을 위해

